메트로 2014년 3월 3일 월요일 제2525호 www.metroseoul.co.kr

겨울왕국 천만관객 돌파

박지성 공격포인트 기록

오랜만에 맑은 하늘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이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인 2일 오후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시계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일에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며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를 기록하는 등 월요일 출근길은 다소 추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민주·새정치연합 통합신당 창당

김한길·안철수 전격선언 기초선거 무공천도 합의

2일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이 6·4 지방선거 전 신당을 창당한다고 전격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2면>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 교체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통합 신당 창당 선언은 3일간의 극비 프로젝트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한 뒤 이를 안 위원장에게 설명하며 통합을 먼저 제안했다.

이후 이들은 3·1절인 1일 오전과 밤 두 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2일 오전 0시40분께 '제3지대 신당'을 통한 두 세력의 통합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긴급 최고위회의를 열어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신당 창당을 추인했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제3지대 신당 창당 시기와 관련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도당 창당대회도 하고, 3월 하순에 전당대회를 할 것"이라며 "3월 말까지 창당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5대5 비율로 창당준비단을 구성해 창당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깜짝 선언'으로 새누리·민주·새정치연합의 3자 대결로 진행되던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통합 신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되게 됐다.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무공천' 원칙을 내세우면서 새누리당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일단 새누리당은 "자력 갱생이 어려운 급조 신생 정당과 야권 짝짓기라면 무엇이든 내던지는 제1야당과의 야합"이라며 "자존심도 내던지는 구태 정치 모습을 재연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야당에 기초지방자치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면 대선공약대로 여당도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권 내에서도 지방선거 무공천 원칙이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 세력을 끌어모았던 안철수 위원장이 독자 노선이 아닌 야권 연대를 선언하면서 새정치연합 내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변수로 남게 됐다. '친노계'와 '비친노계'로 구분된 민주당 역시 당내 반발이 예견되는 만큼 향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캠퍼스 특별호 배포

달 궤도·착륙선 독자개발 착수

2020년까지 7천억 투입

정부가 달 탐사와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각각 7000억여 원을 투자한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7377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달 궤도선·착륙선 독자 개발·발사에 착수한다.

상반기 중 16개 출연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출연연 협력협의회가 자체 예산 77억2000만원을 투입해 달 탐사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상반기 중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워킹그룹 구성도 추진한다. 연내 달 탐사 설계·검증도구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용 달 궤도선, 심우주(Deep Space) 지상국 시스템 설계도 검토한다.

미래부는 공공 분야의 관측 수요에 대응하고 관측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7100억원을 투입해 500kg급 중형 위성 표준 본체를 개발한다.

또 기술력 있는 대형 우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우주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승희기자 suh3108

'신당 건축' 가시밭길 예고

덥석 잡은 손… 지방선거 고육책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공동운영위원장이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 예고'하면서 앞으로 통합을 위한 '가시밭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양측의 이번 신당 창당 선언은 3자 구도로 지방선거에 임할 경우 야권의 분열로 필패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그동안 "양측의 경쟁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기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안철수 위원장 역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독자 노선을 고수해왔지만 야권 분열의 책임론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국회 내 2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정치의 벽도 실감했다. 이때 민주당이 무공천에 동참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하며 통합의 손을 내밀자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우선 3월 말로 예정된 신당창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경우 당권을 놓고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양측은 '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126석 대 2석'이라는 물리적 불균형과 상관없이 '5대5'로 창당준비단을 꾸린다. 하지만 향후 신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분 경쟁이 불가피하다.

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후보 주고받기가 쉽게 해결되지 미지수다.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 소속 박원순 현 시장이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이지만 경기도지사의 경우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최종 결심 여하에 따라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내 기존 주자와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안 위원장의 '러브콜'을 받아온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거취도 변수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경우 당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양측 후보군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을 거치며 등을 돌린 민주당 내 '친노' 진영과 안 위원장 측이 부리 깊은 앙금을 어떻게 해소할지 관건이다. 친노 진영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신당 창당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 세력 간 주도권 경쟁이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당권, 문 의원-대권'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미키기자 mikim@metroseoul.co.kr

김한길(오른쪽)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6·4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랑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남산 백범광장 김구 선생의 동상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준 서울시장 출마선언

"당선되면 임기 채우겠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 백범광장의 김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서울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힘차게 고동치도록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주어진 임기를 지키면서 서울 시민과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며 당선 시 자기 대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밝혔듯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서울이 그 중심 역할을 할 때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큰 그림을 가지고 단계별로 실천하겠다"며 "3시간 비행 거리에 살고 있는 15억 명이 찾아오고 싶은 서울, 장사가 잘되는 서울,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출마가 예상되는 김황식 전 총리와 이미 출마 선언을 밝힌 이혜훈 최고위원의 삼파전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위안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3~28일 열리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는 6일까지로,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5일(현지시간) 정부 대표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알릴 계획이다.

애초 정부 대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막판 일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대표의 급을 어느 정도로 높일지를 놓고 고민했으나 예년대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쇼핑 서울여행' 4개 언어 발간

서울시는 2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서울의 다양한 쇼핑 스타일을 만끽해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쇼핑천국 서울여행'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간체·중국어 번체 등 4개 언어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안내서는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하는 법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는 법 ▲쇼핑지 주변 관광 명소와 맛집 ▲추천 쇼핑코스 등 알짜배기 쇼핑 정보를 총망라했다.

시는 공항·호텔 등 시내 숙박업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3만4000부 가량을 비치하고 외국인들의 쇼핑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밀양송전탑 진정 "인권 침해 아니다"

인권위 두달만에 기각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권위가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낸 진정 중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과 관련된 진정이 지난달 10일 열린 전원위에서 기각됐다.

밀양 주민 이모씨는 지난해 9~11월 "경찰이 송전탑 공사 현장 3곳의 진입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써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전원위에 검토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두 차례 재상정을 거치는 진통 끝에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심의를 마무리했다.

/송다혜기자 [illegible]

구로구, 국민신문고 총리상

서울시 구로구가 '제6회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대상은 전국 총 100개 기관을 26개 지표로 이용해 선정했다.

금요문화·다양 장르 공연

서울시 중랑구가 '예술이 있는 금요 음악회'를 다양한 문화 공연을 위해 '금요 문화 공감'으로 변경 운영하기로 했다. 클래식과 함께 뮤지컬·오페라·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연다.

65세 이상 폐렴 예방접종

서울시 도봉구보건소는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의사협 집단 휴진 대란 예고

찬성 76%…정부 강력대응

의료계가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발생했던 의료 대란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오후 지난달 진행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6만9923명 가운데 4만8861명(69.8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76.69%, 반대 23.28%로 예정대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 총파업 동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만약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며 총파업을 시작하면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일어난 파업에 이어 두 번째 의사 파업이 된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이 2000년과 같은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달라 투표에 참여한 의사들 모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의협 구성의 핵심이 되는 16개 시·도 의사회 역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충남·부산·강원의사회만이 노환규 의협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역시 총파업 강행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질극 남성 연행 지난 1일 밤부터 서울 강서구 망구장미 인근 제과점에서 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2일 새벽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욱이 중대형급 병원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의협의 총파업 중요 쟁점 중 하나인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병협이 이를 문제 삼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대형급 병원 소속 의사 역시 선뜻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집단 휴진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단 휴진 시 의료법위반 현의 결과를 무효화시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

한편 여야는 2일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며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대학 청소·경비직 총파업

서울 12개 대학 1600여명

서울 시내 12개 대학의 청소·경비 비정규직 1600여 명이 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연맹 서울경인지부는 지난달 24일 "서울경기지부 소속 비정규직들이 20여 개 용역업체의 교섭위원들과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사측이 임금 동결안을 고집, 최종 결렬돼 예정대로 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고려대·고려대 안암병원·경희대·연세대·연세재단빌딩·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카이스트·한국예술종합학교·광운대·인덕대·동덕여대·덕성여대 등 14곳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부는 지난달 5일 사측과의 집단 교섭이 결렬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3주간 조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윤다혜 기자

LPG協 대학생 250명에 장학금

대한LPG협회는 총 10억원을 기부해 택시업계 자녀 대학생 250명에게 연간 최대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LPG 업계가 출연한 'LPG 택시가족장학기금' 재원으로 택시업계에 1년 이상 종사한 부모를 둔 대학생 자녀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우수 대학생 250여 명에게 최대 1년간 연간 400만원씩 지급된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이번 기금은 택시업계의 복지 향상을 위해 LPG 업계가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학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억원을 기탁해 이뤄졌으며 올해 상반기 장학생은 지난달 말에 발표됐다.

오만서 뇌물 준 혐의로 징역 10년

국내 대기업 임원에 선고

국내 대기업 계열의 종합상사 임원이 오만 국영석유회사(OOC) 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오만 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400만 오만리알(약 111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만 법원은 최근 국내 모 대기업의 중동지역 부사장이 지난 2006년 13억 달러 규모의 소하르 공단 아로마틱스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낸 이후 OOC 사장 소유 회사에 800만 달러(약 85억원)를 입금한 것을 뇌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이 비용이 사업 기간 현지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정당한 비용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정당하게 지불한 컨설팅 비용인 만큼 뇌물공여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만 법원은 아흐마드 알와하이비 사장에게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3년에 벌금 500만 오만리알을 선고하고, 아델 알라이시 옛 경제부 장관 보좌관에게는 알선을 주선한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400만 오만리알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8월 오만 무스카트에서 체포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 초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달 27일 법정 구속된 상태다.

/윤다혜 기자

승자거부 택시 車파파라치 도입

서울시 신고포상금제 추진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를 없애기 위해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승차 거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올가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

현재 승차 거부로 적발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나 운행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승객이 승차 거부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쉽지 않고 승객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없어 승객의 승차 거부 신고에서 범칙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단속 인력의 한계로 자치단체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승차 거부 적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 신고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고, 전문 신고꾼도 활동하게 돼 승차 거부를 단기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주 기자 mikem@

캐릭터 우표 서울지방우정청이 라바 등 소재로 한 한국의 캐릭터 시리즈 우표를 지난달 28일 발행했다. 스티커로 발행되는 이번 우표는 식탐 많고 버릇스럽지만 미워할 수 없는 레드와 옐로우를 비롯해 코코몽, 뿌까 등 친구들이 10장의 우표에 소개됐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연인의 뒤라스 사망 — 실어생전 프랑스 작가 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로 꼽혔던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가 1996년 3월 3일 8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자신이 태어났던 베트남을 배경으로 14세 프랑스 소녀와 중국인 부호 아들의 육체적 애정을 다룬 소설 '연인'으로 프랑스 최고 권위의 공쿠르상을 수상했다.

中 철도역서 테러 170여명 사상 참극

중국 윈난 쿤밍철도역에서 무차별 테러가 발생, 1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테러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정협 3일, 전인대 5일) 개막을 앞두고 신장 독립 세력이 기도한 것으로 추정돼 치안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10여 명의 괴한들이 쿤밍철도역 광장에서 시민을 무차별 공격해 29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다.

현지 언론들은 "신장 분열 세력이 계획한 테러 사건"이라며 "사건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목격자들은 괴한이 모두 검은색 복면을 썼으며 흉기를 들고 철도역 매표 창구로 들어와 시민들을 찌렀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다. 부상한 시민들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으로 각종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09년 7월 5일 한족과 위구르족의 충돌에 197명이 숨지고 17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을 놓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푸틴, 우크라이나에 軍 투입하나

서방 자제 요구 불구 러 의회 승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에 나설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력 사용을 위해 상원 승인까지 받으면서 크림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6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서 비상 군사훈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5만 명의 병력과 전투기 90대, 탱크 870대와 군함 80척이 기동 훈련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6000명의 병력을 크림반도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는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이 같은 병력 이동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군사 공격 카드를 꺼내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러시아가 새로 들어선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선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여러 면에서 군사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먼저 리비아, 시리아 사태 등에서 외세 개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할 경우 스스로 원칙을 깨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 성향인 동남부 지역과 친서방 성향인 중서부 지역 간 내전을 초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내전은 대규모 난민 유입 문제 등과 함께 러시아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인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으로 이미 러시아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통화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러시아 은행과 기업들의 연쇄 피해도 우려된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오바마 90분 통화 철수 촉구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림반도 내 병력 철수를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러시아가 위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군사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90분간의 '전화 회동'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입이 우크라이나 주권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러시아 정부가 개입, 우크라이나 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6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8개국(G8) 경제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Since 1961

50년 뿌리깊은 나무에서 두번째 열매가 열렸습니다

농협공제 50년의 역사가 키워낸 행복의 나무,
NH농협생명이 출범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 더 알찬 행복의 열매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조특법 무산에 우리금융 민영화 '쑥대밭'

경남·광주은행 분할 법인세 반영 '적자 날벼락'
법안 처리 예상해 '선물 상폐' 했다가 번복 안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권 싸움에 우리금융이 적자 쇼크를 겪고 투자자들도 혼선을 빚는 사태가 벌어졌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4분기에 연결 기준 5377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고 26일 정정 공시했다. 지난 6일 28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으나 26일 당초 예상했던 경남·광주은행 분할 기일이 미뤄지면서 세금 등 관련 비용이 실적에 대거 반영된 정정 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2월 26일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계열사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기일을 당초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2개월가량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여파다.

조특법은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할로 발생하는 법인세 6500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우리금융은 4분기 실적에 오는 5월 납부해야 하는 이 세금을 회계상으로 선반영하게 됐다.

STX조선해양에 대한 주가 지원과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 등에 따른 충당금까지 2200억원 추가로 반영되면서 우리금융 적자폭은 더 커졌다.

갑작스러운 일정 지연에 주식시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우리금융 선물 및 옵션은 국회의 조특법 처리와 이에 따른 경남·광주은행의 3월 1일 분할을 기정사실화하고 27일 상장폐지됐다. 그러나 분할 기일 연기 소식에 26일 장 마감 후 전해진 탓에 상폐를 번복할 수 없게 됐다.

또 선물 상폐에 이어 거래정지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주식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매매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민영화 정자 지연은 우리금융 실적 악화 등 결국 주가에 부담을 주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금융은 정치권 싸움으로 민영화가 지체되는 것에 강력한 대응으로 맞섰다.

우리금융은 28일 늦은 오후에 이사회를 열고 민주당 기재위원과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정부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조특법 개정이 무산돼 경남·광주은행 분할이 무산되면 향후 우리은행의 매각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서 나온 조치다.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좌초되면 투기성 자본인 사모펀드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치권은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조특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쇼핑족 유혹하는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 2일 오전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인 '일라비타(La vita)' 개점을 기념해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매장에는 의류 브랜드 '모도다예'와 수제 자전거 '라스트라나 오피시나', 수제 초콜릿 '뷔카스' 비박 등 23개 브랜드의 이탈리아 상품을 판매한다. /연합뉴스

베이징에도 기업은행 떴다

은행들 해외진출 활발

주요 은행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 찾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제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분행을 오픈했다. 이번 베이징분행 개점으로 기업은행은 톈진과 칭다오, 선양, 옌타이 등 중국 내 8개 지역에 15개의 영업망을 갖추게 됐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교민과 현지 고객에게도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 진출은 신흥 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현지 상황을 감안해 경쟁력을 보유한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도 올해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해외시장 현지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글로벌 현지화와 타깃 시장 확대, 창조적 영업 활동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역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저위험 저수익의 대표적 여신인 발전 프로젝트와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투자 분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면서 "신규 수익원 창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집값 상승세 한계… '홈' 원하면 사라

금융가 사람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금융위기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수도권 주택 시장이 5년여 만에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를 통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떠받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나 고민일 수밖에 없다.

박원갑(사진)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홈과 하우스부터 먼저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홈(home)과 하우스(house) 두 단어 모두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홈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닌 가정으로서의 집을 뜻한다. "우리 집에 갈 것이냐"를 영어로 '아이 윌 고 하우스(I will go house)'가 아닌 '아이 윌 고 홈(I will go home)'으로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위원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집을 지금 사야 할까요?'라는 질문은 '지금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라는 의미"라며 "본인은 실수요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래도 집값은 올라야 한다고 말한다면 집을 홈이 아닌 하우스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 저성장 등의 사회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오래갈 수 없고, 따라서 하우스를 지금 사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하지만 내 집 마련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 홈을 사려는 거라면 괜찮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기를 키운다면 개와 함께 살기 좋은 집, 어린 자녀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길을 건너지 않고도 통학할 수 있는 집, 화초를 가꾼다면 볕이 잘 드는 집이 좋은 것 아니냐"며 "가격 외 가치와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면 꼭 아파트를 선호할 이유도, 다세대·다가구의 낮은 환금성을 지적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격과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무리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상욱기자 pass@

GS건설 공시위반 사상 최대 과징금

GS건설이 손실을 미리 알고도 투자 위험을 밝히지 않은 채 수천억 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 공시 위반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GS건설 제재안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GS건설은 실적 악화를 예상했으면서도 회사채 발행 때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신용등급 AA- 의 회사채를 3800억원(이자율 3.54%) 규모로 발행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7일 2012년 4분기 영업손실 800억원을 공시했고 이어 4월에는 1분기 5354억원의 영업손실을 발표했다.

연이은 어닝쇼크에 GS건설 주가는 최대 40%까지 급락했고 신용등급도 A+로 떨어졌다. /박선옥기자

"어떻게 예쁜 오븐 보셨나요?" 삼성전자가 삼성디자인의 타임리스 프리미엄 디자인을 구현해 출시한 2014년형 삼성 스마트 오븐을 모델이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프리미엄을 들여 보다 반짝이는 블랙 크리스탈 글로스를 손잡이에 적용하고, 신비로운 아이스 블루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삼성전자 제공

국회 넘어간 '수신료 4000원'

방통위 안건 의결 논란 – 국민 73% "반대" 입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올리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 측 3명 찬성, 야당 측 2명 반대로 통과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KBS의 재원을 안정시켜 공영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시켜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로 연계될 수 있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번 인상안에서도 방통위는 2017~2018년 광고를 축소하고 2019년까지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수신료에서 EBS 지원 비율을 현행 2.8%에서 7%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같은 인상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2007년과 2010년에도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여론도 인상안에 대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JTBC가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신료 인상 찬성은 19.8%, 반대 73.4%로 반대 의견이 압도했다.

야당에서도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부담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국민 이익이 담보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 과연 KBS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MWC 휩쓴 '모바일 코리아'

삼성 갤럭시S5 필두로 제조·통신·IT중소기업 앞선 기술력 입증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다음 세대를 창조하라(Creating What's Next)'를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800여 기업, 7만5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전시 및 각종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단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MWC 2014'에서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MWC 2014'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5 언팩(제품 출시) 행사'였다. 삼성전자는 행사 첫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와 함께 '삼성 기어 핏', '기어2', '기어2 네오' 등 웨어러블 기기도 선보였다. 국내외 취재진과 참관객 등 5000여 명이 행사장에 몰리며 갤럭시 시리즈의 인기를 입증했다.

비록 일각에선 '기대보다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한 스마트폰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는 반응을 받으며 향후 시장 반응을 기대하게 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와 삼성 기어핏은 MWC 기간 중 12개의 '최고 제품상'을 거머쥐는 모습도 보였다.

LG전자 역시 'LG G프로2'를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 제조사의 앞선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입증했다. LG전자는 G프로2, 웨어러블 기기 '라이프밴드 터치' 등을 앞세워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조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도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뛰어난 롱텀에볼루션(LTE)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SK텔레콤과 KT는 광대역 LTE, LTE-A 상용화 및 3밴드 LTE-A 기술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LTE 요금제와 특화 서비스 등 종합적인 LTE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최고의 LTE 공헌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MWC 2014' 기조연설에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선 데에도 업계가 주목했다. 대개 영향력 있는 이동통신사나 제조사 최고경영자(CEO)가 맡아온 기조연설을 국내 벤처기업인이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카카오의 사업 모델이나 카카오톡 서비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MWC에서는 국내 제조사, 통신사, IT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며 "전 세계가 우리 기술력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번 MWC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IT 중소기업들에도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에서 삼성전자가 개최한 삼성 개발자 데이 행사 모습 /연합뉴스

NHN엔터 이준호 회장도 '1조 클럽'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주식 갑부 1조 클럽에 등재됐다. 재벌닷컴은 지난달 28일 현재 1834개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이 회장 보유 주식 가치가 1조6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9472억원보다 1163억원(12.3%) 증가했다. 이는 네이버 주가가 지난해 말 72만4000원에서 2월 말 81만7000원으로 12.9%(9만3000원)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이 회장의 1조 클럽 진입에 따라 국내 주식 갑부 1조 클럽 멤버는 17명으로 늘어났다.

상장 주식 최고 주식 부호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건희 회장은 보유 주식 가치가 11조718억원이다.

2위와 3위에 나란히 오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각각 6조9462억원, 3조1961억원이다. 4위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주식 가치는 2조8692억원이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의 주식 가치는 각각 2조7590억원과 1조6305억원으로 5위와 8위에 올랐다. /김태균기자 ksj1@

한국전력 2017년까지 14조대 부채 감축 선언

정부 산하기관 중 과다 부채 공기업으로 분류된 한국전력공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4조원대의 부채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2일 2017년까지 14조7600억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 구조조정으로 3조원 가량을 줄일 방침이다.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시기·규모·방식 등을 바꿔 투자비를 절감키로 했다.

해외 사업도 수익성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채주연기자 bss@

2014년 1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 공동채용이란?
2014. 2. 26 (수) ~ 3. 14 (금) 까지
벤처기업협회 인재지원팀 02-6331-7051 ~ 7053
1차 공동채용 주요 참여기업
▶선도벤처기업
DAEATI
JVM

무약정·반값으로 LTE 즐겨라

CJ헬로비전 청소년 유심 요금제 출시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서비스 '헬로모바일'은 신학기를 맞아 무약정 반값 요금제인 '조건없는 유심 LTE청소년원'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원'은 음성·영상 데이터 사용 시 차감되는 청소년 요금제의 공통 단위를 말한다.

유심(USIM)만 구입하면 가입할 수 있는 이 요금제는 '조건없는 유심 LTE청소년원 34'와 '조건없는 유심 LTE청소년원 42'의 두 가지로 구성됐다.

34·42요금제의 데이터는 각각 750메가바이트(MB), 1.5기가바이트(GB)씩 제공된다. 2만 원이 두 요금제 모두 문자메시지 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와이파이는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며 무료 데이터를 다 소진한 후 차감되는 요율은 1MB당 20.48원이다. 음성이나 영상통화 시에는 초당 2.5원, 문자는 1건당 15원, 멀티문자메시지(MMS)는 200원이 소요된다.

김종렬 CJ헬로비전 상무는 "조건없는 유심 LTE청소년원은 약정기간이 없는 데다 기본료를 50% 할인해 요금 부담도 줄였다"며 "헬로모바일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알뜰폰 시장 리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illegible]

KT 모든 광역시까지 '광대역 LTE-A'

KT는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모든 광역시까지 '광대역 LTE-A'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광대역 LTE-A란 광대역 20MHz 주파수에 추가로 10MHz를 묶어 최고 속도 225Mbps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서울을 시작해 11월 수도권 전 지역과 지하철 전 구간에 걸쳐 광대역 LTE-A 서비스를 확대한 KT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1일부터 광역시에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KT의 광대역 주파수인 1.8GHz 대역은 이전부터 LTE 주력 주파수로 전국에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 놓은 상태인 데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광역시에서도 기지국 펌웨어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타사보다 더 빠르게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완성했으며 지상뿐 아니라 지하철, 건물 내부, 외곽 지역까지 모든 구간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다만 이번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225Mbps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속도가 지원되는 단말기가 출시돼야 한다. 서울·수도권·광역시의 기존 KT 가입자들은 LTE 스마트폰의 경우 최대 100Mbps, LTE-A 스마트폰의 경우 최대 150Mbps의 속도만 체감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사 육성을 위해 3일부터 2차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1차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46개사를 선정해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2차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은 최근 3년간 연간 수출 200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수출 잠재력, 매출 대비 수출 비율, 수출 확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선정한다.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4대 플랫폼을 통해 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프리미엄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산업부와 유관 기관의 기존 사업도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4월 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접수·신청하면 된다.

/유주영기자 [illegible]

모바일 시장 올해 '꼭짓점'

매출액 362조 '최고' 찍고 내년부터 성장 후퇴…중저가 보급형 위주 재편 탓

IT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맞은 첨예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시장이 내년부터 축소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2일 최신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매출액이 올해 3394억 달러(약 362조3000억 원)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3342억 달러로 올해보다 1.5% 감소하며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후년인 2016년에는 3275억 달러로 2.0%, 2017년 3194억 달러로 2.5%로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IHS는 이런 역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모바일 기기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어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서 중저가 보급형 제품 위주로 재편되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이 결과 판매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판매 단가가 하락해 전체 매출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업체가 최근 중저가 모바일 기기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중저가 모바일 기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체 모바일 기기 판매 대수는 올해 17억4500만 대로 지난해보다 6.3% 늘고, 2015년 18억900만 대(3.7%), 2016년 18억6000만 대(2.8%), 2017년 19억1000만 대(2.7%)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모바일 기기 평균판매단가(ASP)는 올해 194달러로 지난해보다 2.6% 오르며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5년 185달러(-4.6%), 2016년 176달러(-4.9%), 2017년 167달러(-5.1%)로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189달러로 2012년(163달러)보다 16.0%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하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T맵' 실시간 교통정보 모든 DMB 서비스 SK플래닛이 국내 모든 DMB 기반 교통정보 서비스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SK플래닛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은 MBC, KBS에 이어 SBS, YTN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DTS(DMB TPEG Service)사와 교통정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DMB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TPEG) 송출에 들어갔다. /SK플래닛 제공

여성 경제활동 포기 이유… 결혼 > 양육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최대 요인이 결혼이며 이는 자녀 양육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동국대 민세진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여성 가운데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그만둘 확률이 37.8%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결혼하게 되면 미혼 여성보다 일을 포기할 확률이 58.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포기할 확률이 3% 정도 더 높았다. 전경련은 그동안 여성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주된 요인으로 여겨졌던 자녀 양육보다 결혼이 10배 이상 높은 것이어서 이례적인 연구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혼을 전후로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 이외에도 우리나라 20세 이상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주요인은 '이혼과 사별'이었다.

또 남편이 있는 여성이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보다 37%가량 경제활동에 나설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교육 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확률은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세진 교수는 "한국 여성의 고용률 제고에는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중요하다"며 "한국 여성은 핵심 연령(25~54세) 고용률이 6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29위(OECD 평균 66.2%)에 불과하며 결혼을 전후로 급격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는 이른바 'M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어, 특히 30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illegible]

▲한 줄 평가: 어느 차도 닮지 않은 독특한 개성이 돋보인다. 강력한 파워는 기대 이상이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세상 어디에도 없던 차

임의택의 차차차

■ 벤츠 CLA 45 AMG

세상에 강력한 파워를 갖춘 차는 많지만 매력을 함께 갖춘 차는 찾기 힘들다. 단순히 숫자로 느끼기 힘든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CLA 45 AMG는 팔색조의 매력을 갖춘 차다. 강력한 파워와 함께 독특한 스타일이라는 점이 이 차가 주목받는 이유다.

강한 직선과 곡선이 강조된 차체는 개성이 듬뿍 담겨있다. 앞모습은 A클래스를 닮았고 옆모습은 CLS의 곡선을 닮았다. 쿠페형 준중형급 세단이라는 독특함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다. 차체 길이는 4630mm로 현대 아반떼(4550mm)보다 길고 쏘나타(4820mm)보다는 짧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는 2700mm로 아반떼와 같다.

대시보드는 A클래스와 유사하면서도 AMG 모델만의 특색이 곳곳에 녹아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센터콘솔에 장착된 AMG 변속기다. 200 CDI는 변속기가 스티어링 칼럼에 장착된 반면에 45 AMG는 고리 모양의 독특한 기어 노브가 센터콘솔에 장착된다. 물론 이 변속기는 전통적인 '손맛'을 위한 것이 아니다. D 드라이브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만 건드리면 바로 수동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전륜 기반의 4륜구동은 평상시 구동력이 앞뒤 100대0으로 나뉘지만 상황에 따라 50대50까지 구동력이 자동으로 바뀐다. 앞뒤 구동력이 45대55로 세팅되는 벤츠의 후륜 기반 4매틱 모델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구성은 급가속이 필요하거나 접지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도로에서 뛰어난 접지력으로 빛난다. 후륜 기반 모델보다 일상적인 주행에서 연비를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

기존에 없던 준중형급 4도어 쿠페형 세단 독특
강력한 파워·다양한 매력 겸비 '도로 위 팔색조'

CLA 45 AMG의 하이라이트는 강력한 파워의 엔진이다. AMG 최초의 직렬 4기통 2.0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최고 출력 360마력을 뿜어낸다. ℓ당 출력은 무려 181마력으로, 쏘나타 2.0 가솔린보다도 출력이 높다. 최대 토크 45.9kg·m은 2250~5000rpm의 폭넓은 구간에서 분출되고 단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준다.

강력한 파워에 어울리는 안정된 핸들링은 단단한 서스펜션과 광폭 타이어 덕분이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 모두 235/35R19이고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과 궁합을 이뤄 안정적인 핸들링을 완성해낸다.

고성능 차를 몰 때 피하기 힘든 문제는 높은 유지비인데 CLA 45 AMG는 이를 듀얼 클러치 미션 적용과 효율적인 구동력 배분으로 해결했다. 그 결과 도심 연비는 9.3km/ℓ, 고속도로 연비는 12.9km/ℓ를 받았고 이번 시승에서는 8.5~9.0km/ℓ를 기록했다.

CLA 45 AMG는 이전까지 없던 준중형급 4도어 쿠페형 세단이다. C63 AMG와는 급이 다르지만 독특한 매력을 갖추고 있고, 6970만원의 가격은 성능에 비해 합리적이다. BMW나 아우디에 비교할 만한 차가 없다는 점도 이 차의 가치를 더욱 빛내준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수입 준소형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벤츠	B-클래스	1,900	2,100	2,340	—	—
	뉴C클래스	2,750	2,980	3,240	3,740	4,070
BMW	뉴3시리즈	2,650	2,850	2,960	3,930	—
아우디	뉴A3	1,900	2,000	2,410	2,500	
	뉴A4	2,480	2,510	2,890	3,380	3,330
미니	쿠퍼	1,630	2,060	2,100	2,430	2,580
폭스바겐	골프 6세대	1,640	2,120	2,320	2,600	2,140
	CC	2,440	2,630	2,980	3,080	
렉서스	IS	2,320	2,610	3,090		
푸조	308	1,800	2,130	2,080	2,170	2,57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강해진 쏘나타…연비 괜찮을까

현대차 신형 LF 모델 내일 언론 공개 행사

현대자동차가 신형 쏘나타(LF) 데뷔를 앞두고 오는 4일 남양연구소에서 국내 기자들에게 쏘나타 프리뷰 행사를 연다. 올해 국내에서 데뷔하는 자동차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모델인 만큼 이날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공개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언론에 미리 공개한 바 있다. 이때 외부 디자인만 노출됐고 실내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은 텍스트 자료를 통해 공개했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은 바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형 쏘나타는 기존 쏘나타처럼 2.0 CVVL 가솔린과 2.0 가솔린 터보 등 2가지 엔진과 자동변속기가 장착되고, 추후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탑재된다.

신형 쏘나타는 제네시스와 마찬가지로 차체 강성 보강에 주력해 독일·일본 중형차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의 강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이 전체 강판의 절반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쏘나타에 없던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추가된다. 덕분에 미국 IIHS에서 실시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췄다.

현대차의 신형 쏘나타 렌더링 예상 모습 /카스쿠프닷컴 제공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첨단 장비도 대거 탑재할 예정이다. 이미 제네시스, 그랜저 등에 장착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을 비롯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S),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등이 신형 쏘나타에서도 선보인다. 또한 직각 주차와 평행 주차까지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주차 보조 시스템(ASPAS)도 옵션으로 마련된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내용이 충실해졌지만, 문제는 가격과 연비다. 첨단 장비가 추가된 만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제네시스에서 지적됐던 연비도 관심거리다.

현대차는 실용 영역에서의 연비 개선과 함께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 DCT 변속기 장착 등을 통해 연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4일 언론 공개 행사 후 사전 예약에 들어가며,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판에 나설 예정이다.

/임의택기자

시련의 금융계…털고 일어나자

뉴스룸에서
박정원
<경제산업부 차장>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지만 금융계는 여전히 추운 시련의 계절이다.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에 카드사 정보 유출 등의 영향으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등 고위층부터 아래로는 텔레마케터 등 영업인들까지 모두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인 카드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영향이 전 금융권에 파장을 미쳐 다른 업종에서도 영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모 캐피털 사의 홍보부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 영역도 틀리지만 카드사 정보 유출 영향으로 우리도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 일단은 의심부터 하니 영업직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미 올해는 거의 실적을 포기한 상태다. 3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간 KB국민·롯데·NH농협 등은 수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나머지 카드사들도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다.

이 상황에서 영업을 확대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미 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나서는 시점이었는데 너무 큰 장애물을 만나버렸다. 또 다른 금융계인 증권업계의 부진도 장기화되고 있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난립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증권사의 수익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보험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확실히 영업이 예전같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 당국이 금지했던 텔레마케팅(TM)을 조기에 재개토록 허용했지만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움츠렸던 개구리가 멀리 뛴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번 일련의 사태들을 계기로 금융사들이 힘을 내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희망적인 것은 오랜 불황의 끝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물론 업계에서도 올해 말부터는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고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금융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지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경영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

어느 때보다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금융가 사람들. 이제는 넘어진 게 아니고 툭툭 털고 일어나고 있는 중임을 국민들에게 증명해주기를 기대해본다.

규제 혁파 없이는 경제 못 살린다

정론탁설
유병팔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 활성화에 올인 할 태세다. 지난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개의 축을 토대로 9개 부문에 걸쳐 핵심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률 4%를 달성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자면 무엇보다 생산의 주역인 기업의 의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기업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각종 규제가 그대로 존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중이다. 여기에다 노사 관계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조사 대상 60개국에서 56위에 이를 만큼 강성 노조 국가다. 또한 웬만한 주요 그룹의 총수가 잇따라 구속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기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우선 기업 경영을 둘러싼 규제들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 14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7위로 규제가 많은 '규제 공화국'이다. 때문에 전경련에서는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도 과감히 철폐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먹는 물보다 공장 폐수가 깨끗해야 한다"는 황당한 규제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규제감량제 틀 통해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에서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으로 발전시켜 최근 2년간(2012~2013년) 12억 파운드(약 2조1358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인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규제총량제'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원입법의 비율이 계속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전체 입법 건수의 41.2% 정도였으나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무려 70.7%로 늘어나고 19대에서는 80%를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입법 활동 속에 규제총량제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부탁해 입법으로 이어지는 '청부 입법'이 횡행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제정되는 각종 규제 조례도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자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출발은 규제 혁파부터 해야 한다.

포토프리즘 | 봄기운과 봄옷

완연한 봄기운을 되찾은 1일 오후 화사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인근 옷가게를 찾아 진열된 봄옷들을 구경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대학생활 잘 하는 법 가이드

기자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3월 첫째 주 월요일은 대학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본지는 얼마 전 캠퍼스 특집판을 발행했다.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노하우, 유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특집판 준비에 참여하면서 필자는 대학 시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먼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4년 내내 지녀야 한다.

비싼 등록금과 청춘을 담보로 대학에 가지만 우리 사회는 대학생들을 방치한다.

대학 잘 가는 법만 관심 있지 '대학 생활 잘 하는 법'에 대해서는 다 몰라라 하고 있다.

10대 시절 동심에서 깨어나 진로, 군대, 취업, 결혼 등 20대에 들이닥칠 인생 과제의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날 것도 추천한다.

학과 동기들뿐 아니라 타 학과,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세상 보는 폭을 넓혀야 한다. 각종 대외 활동과 인턴십 등으로 실무 경험을 쌓고 멘토도 찾아야 한다. 세상에 없이 공부만 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시절은 10대 때 충분히 했다. 대학교에서도 진로 실전 프로그램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산학협력을 늘려야 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80%. 방황하는 대학생들도 그만큼 늘어났다. 고민이 있으면 학내 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지혜가 필수다. 등록금이 걱정된다면 한국장학재단과 교내 장학 프로그램을 샅샅이 뒤져야 한다. 움직이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14학번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

살라망카의 개구리

인문의 선택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서양 중세의 지식인들은 여행하는 자들이기도 했다. 좋은 서재에 파묻혀 있기도 했지만 세상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지식의 소문이 들리는 곳을 찾아나섰다. 이들의 발걸음은 그래서 일종의 순례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지식 여행은 중세 서양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도 현장 답사의 산물이었고, 중세 아랍 최고 역사가로 꼽히는 이븐 할둔의 '역사서설'도 긴 여정을 통한 성과다. 혜초 스님이 불국(佛國)의 고향 인도까지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여행기도 다르지 않다.

훗날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뮈스가 영국에서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를 만나고 오랜 괴테가 이탈리아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당대의 지식을 압축해서 마주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대학이었고, 대학 또한 지식 갈증이 높았던 이들에게 여정의 목표가 되었다. 파리 대학을 비롯해 로마나 케임브리지대학도 그런 이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그런데 유럽 최고 대학 출신들도 언제 가보나 했던 곳이 바로 스페인의 코르도바였다. 여기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이 공생하면서 서로 지적 자극을 주고받으며 다채로운 문명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었다. 유럽의 르네상스도 이 코르도바의 지적 활기에 힘입은 바 막대하다.

이 코르도바의 지적 활기를 흡수한 대학 도시가 다름아닌 살라망카다. '돈키호테'에는 '살라망카의 학사'라는 인물이 등장할 정도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도시의 상징이 개구리라는 점이다. 이제는 도서관으로 쓰이는 고풍스러운 건물 입구 위에 개구리가 조그맣게 조각돼 있고, 저 위에 개구리가 학사모를 쓰고 뛸 기세를 보이는 관광 상품을 팔고 있는 것도 이 도시다.

살라망카의 개구리는 오랜 준비를 거쳐 때가 왔을 때 힘 있게 도약하는 지적 성취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은 동면(冬眠)과도 같아서 아무도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망각하게 된다. 이건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답답한, 자기 존재 증명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걸 이겨내는 것이 살라망카의 훈련이다.

깊고 넓은 준비가 없는 지식과 문명은 잠시 반짝하다 사라질 뿐이다. 지식을 소비 상품으로 얻거나 순간의 인기에 몰두하는 시대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살라망카의 개구리는 살라망카만의 개구리가 아니다.

초기 디스크 질환은 도수 감압 운동 치료!

중기·말기 디스크 질환은 10분 정도의 고주파로 치료 끝
일자목 및 오래 앉은 자세에 의한 목·허리 통증 등 완화

30대 여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목이 늘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거나 뭉친 느낌으로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 회사 근처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을 찾아 치료받았다. 하지만 통증의 호전 없이 최근 두통과 어지러움까지 생기면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여러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자주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했다.

이승주 강남조이스병원 원장은 일자목이 오래돼 거북목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결과 제 4~6 경추 추간판 탈출증도 동반됐다고 B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이후 이 원장은 경추 신경주사 치료를 통해 B씨를 치료했고 B씨는 이 치료 후 병원의 비수술 척추치료센터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경추 도수 감압·운동 치료를 일주일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현재 B씨는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자 맞춤형 치료로 회복 도와

어져럽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져 만성 목 통증 및 어깨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틀어짐 증상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주는 침치료, 추나 요법, 교정치료, 약물치료, 신경 성형술 등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 허리 및 목 디스크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척추관절 치료 병원으로 유명한 강남조이스병원은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한 후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정확하게 질환을 진단한다. 이후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강남조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척추 치료를 선진 체계화시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또 강남조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고 눌린 신경의 압박을 감소시키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해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디스크의 회복을 돕는 감압치료,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강남조이스병원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 중이다.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에서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척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 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설립해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여의도점 (02)786-2200, 홍대점 (02)336-2200

/정제홍기자

엄마, 선생님 말씀이 잘 안들려요

새학기 자녀 귀건강 체크!

새 학기가 시작됐다. 모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학업에 집중해 성적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터.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학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면 아이의 귀 건강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중이염·난청·이명 등 각종 질환이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역력 약한 아이 중이염 위험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이관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고 면역력이 약해 중이염에 걸리기 쉽다. 또 중이염은 감기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단 환경에 노출된 아이의 경우 호흡기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질환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 없이 치료되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력에 이상이 생겨 잘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힘든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귀에서 진물이 흐를 경우 ▲평소보다 잠을 잘 못 자고 많이 보챌 경우 ▲작은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듣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면 중이염을 의심해야 한다.

◆학습에 치명적인 이명

이명은 '삐~' 등의 기계음 혹은 바람 소리, 매미 소리 등이 들리는 증상을 말한다.

이명은 평소 주변 잡음에 묻혀서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도 주변이 조용해지면 다른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들리는 특징이 있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치명적이다.

즉 책을 읽거나 공부를 위해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소리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크게 들리기도 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귀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특정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어폰 장시간 사용 말아야

이외에도 습관처럼 이뤄지는 이어폰 사용은 집중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어폰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

김현미 이어케어네트워크 조이이비인후과 원장은 "한번 훼손된 청력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등을 장시간 착용하지 않고 30분에 5분 정도는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외출땐 마스크 쓰고 배·도라지 섭취를…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법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몸속에서 정화·배출되지 못하고 기관지나 폐에 쌓이면 비염·기관지염·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과 친해져야 한다.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를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외에도 보호안경,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내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은 물론 목욕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건조하지 않도록 실내 습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배·도라지·마늘·해조류·녹차·홍삼 등이 있다. 특히 예로부터 기침과 기관지 환자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배와 도라지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연경 힘찬국제병원 2과 과장은 "코 점막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코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해야 한다. 또 목 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야 미세먼지 배출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청첩장에 쓰고 싶은 '웨딩 장소'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소규모로 웨딩을 진행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특별 웨딩 메뉴를 제공하는 소규모 하우스 웨딩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유망 업종 분야 '2014 블루슈머'에 스몰 웨딩족이 선정된 것처럼 거품을 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가 증가함에 따른 상품으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트렌드에 맞춰 실속 있는 소규모 웨딩 메뉴를 기획하게 됐다.

또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유니버설 홀에서 최소 100명 이상 규모의 웨딩을 예약하는 고객들에게 훈제 연어, 브로콜리 크림수프, 안심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된 6코스 양식 메뉴를 5만5000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에 제공하며 꽃 장식은 275만원(세금 포함)에 이용 가능하다.

4층에 위치한 유니버설 홀은 기존의 평범한 웨딩에서 벗어나 트렌디하고 개성 있는 웨딩을 선호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인기가 많다. 200명 안팎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어 소중한 가족, 지인,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감각적이고 프라이빗한 파티 형식의 하우스 웨딩이나 웨딩 파티 장소로 진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전문 웨딩 담당 코디네이터와의 상담을 통해 예비 신랑·신부가 원하는 그들만의 크리에이티브하고 유니크한 웨딩을 꾸미는 동시에 특급호텔의 세심하면서 격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더불어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엣(at) 웨딩'을 통해 고객 맞춤형 메뉴, 업그레이드된 홈 데커레이션과 라센서 스타일링, 전문 웨딩 담당 코디네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웨딩 메뉴와 음료, 꽃 장식 등 웨딩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2014년도에 결혼식을 계획하는 커플을 대상으로 신부가 웨딩 때 착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티아라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특별 혜택을 선보인다. 문의 02)2222-8600 /황재용 기자

휴플러스, 독일정통 밀맥주 상륙

휴플러스는 지난해 바이에른 맥주의 성공적인 론칭과 밀맥주의 인기에 힘입어 3월부터 독일 정통 밀맥주 '글라세로알헤페'를 본격적으로 판매키로 했다. 소비자가격은 1600원(500㎖). /휴플러스 제공

파나소닉·크레신·소니 헤드폰 음질 '★★' 그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헤드폰이 가격이 비싸다고 반드시 품질이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최대 음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중인 공기 차단식의 밀폐형 헤드폰 23개 업체 31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최대 음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최대 음량을 제한하는 유럽 기준(EN50332-2)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에는 소음성 난청을 방지하기 위해 헤드폰과 이어폰이 94dB 크기의 소리가 나올 때 재생기의 최대 출력을 75㎷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싱가포르)와 TDK(일본)의 두 제품은 사용할 때 재생기의 최대 출력이 75㎷ 미만으로 이들이 유럽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헤드폰 구입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음질 품질 평가에선 대부분이 별(★)4~5개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만원 미만의 제품 가운데 파나소닉(RP-HXD3)과 크레신(C590H) 등 2개 제품, 10만~20만원 제품 가운데 소니(MDR-XB920)는 상대적으로 낮은 별 2개(보통)를 받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의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철 기자

일부 생필품 약속한 듯 가격 올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결과

지난해 생활필수품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 31개 품목 중 16개 품목이 연초 대비 연말 평균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5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주요 다소비 품목들의 인상폭이나 인상률, 인상 시기 등이 비슷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했으며, 이들 기업들 사이의 '부당 편승 가격 인상'이나 '업체 간의 담합'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평균 가격 인상률은 0.7%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한 해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추장 9.7%, 우유 9.3%, 두부 8.6%, 밀가루 5.0% 등 다소비 품목에서 주로 가격 인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난해에도 서민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웠다고 협의회는 분석했다.

◆우유 제품 인상률 상위 포진

제품별로 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원유가격연동제 시행으로 지난해 우유 품목의 가격 변동이 컸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의 가격을 보면 매일우유(1ℓ), 서울우유(1ℓ), 맛있는 우유GT(1ℓ)가 각각 10.4%, 9.5%, 8.2% 가격이 인상돼 가격 인상률 상위 8개 제품 중 3개에 이름을 올렸다.

◆동일 제품군 가격 인상률 비슷

협의회의 가격 모니터링 결과 제조업체들은 특정 제품군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초코파이(오리온)와 카스타드(롯데제과) 제품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각각 1.3%, 1.4% 가격이 인상돼 인상률 차이가 0.1%에 불과했다. 가격 인상 시기도 초코파이는 2012년 9월, 카스타드는 2012년 10월로 나타나 불과 한 달 차이에 지나지 않았다.

밀가루(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사·동아원)와 장류(CJ제일제당·대상·샘표식품)는 1~2월, 우유(유업계 전체)는 8~9월 제조회사의 가격 인상이 발표됐다. 인상률 역시 유사했다.

최근 LG생활건강의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콜라'의 경우 올해 1~2월 내 각각 6.5%, 6.6%로 거의 동일하게 가격이 인상된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 선택권 무시한 '담합'

협의회는 "2013년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 결과 동일한 품목의 경우 브랜드별 가격 차이가 미미했고 가격 인상 시 그 시기와 인상률 또한 유사해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제조사별 제조 원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당 편승 가격 인상'과 '암묵적 담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협의회 측은 이런 현상과 관련해 "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이라는 시장 환경을 이용해 가격 경쟁을 배제하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김민준 기자 mms@metroseoul.co.kr

한돈 명예홍보대사 위촉

● 한돈자조금위원회가 2일 삼삼데이를 맞아 우리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유명 요리사, 건강 전문가 및 파워블로거 등 15명을 '2014 한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조리학과 김정은 교수 등 한돈 명예홍보대사로 선정된 대표들은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 촉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프리메라 서포터스 모집

● 화장품 브랜드 프리메라는 15일까지 프리메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생 서포터스 '프리메니아 6기'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및 면접 진행 후 최종 30명을 뽑는다. 선발된 서포터스는 4월부터 6월까지 프리메라의 신제품 품평, 아모레퍼시픽 본사 견학, 뷰티 트렌드 분석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각종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생활가전 '톱 훈남' 전성시대

밥솥 라이벌 쿠쿠·쿠첸 이승기 장동건 효과 톡톡 '조인성 제습기' 매출 급증

생활가전 업체들이 자사 제품 광고에 경쟁적으로 톱스타급 남자 연예인들을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 고객층이 주부들인 만큼 '훈남'을 내세워 모델 기용 효과를 톡톡히 보려는 전략이다.

쿠쿠전자는 2010년부터 약 3년간 전속모델로 활동한 배우 현빈에 이어 지난해 9월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새 모델로 발탁했다. 당시 밥솥 '풀스테인리스 2.0'에코' 출시에 맞춰 이승기가 출연한 TV 광고를 방영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이 제품은 선보인 지 4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첫 2개월 판매량은 이전 신제품 평균보다 100% 증가했다.

리홈쿠첸은 2012년 9월 배우 장동건을 모델로 선정했다. 장동건을 모델로 내세운 '명품철정 클래식 밥솥'은 '장동건 밥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판매 호조를 보였다. 출시 3년이 넘은 지금도 월평균 7500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위닉스는 작년 4월 배우 조인성을 제습기 브랜드 '위닉스뽀송'의 모델로 내세웠다. 지난해 국내 제습기 시장이 2배 성장하고, 위닉스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는 데에 '조인성 효과'가 한몫했다고 위닉스는 분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델에 동크게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업계 경쟁이 치열하고 '빅 모델'이 주는 매출 상승 효과도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원기자

유통가 컬러풀…향기 폴폴

생활용품·카페 메뉴 등 봄기운 담은 제품 손짓

얼어붙었던 겨울이 물러가고 봄기운이 일기 시작하는 요즘, 유통업계가 핑크빛 컬러와 은은한 봄 향기를 담은 제품들을 선보이며 봄맞이 채비에 나섰다.

무채색 계열이 단조로운 색감을 사용하던 생활용품에도 핑크빛 봄바람이 불고 있다.

타파웨어 브랜즈는 투명한 유리 일색이던 용기에 보라색과 분홍색의 화사한 그러데이션을 입힌 '미디엄 냉장기 벤더' 5종과 '주니어 냉장기 벤더' 5종을 한정 판매한다. 850㎖, 500㎖ 용량의 용기 2종을 5개로 늘려 주부들이 실생활에서 더욱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CJ LION의 구강 전문 브랜드 시스테마는 장미 꽃잎이 그려진 핑크색 제품 용기로 감성적인 디자인을 입힌 '약한 잇몸을 생각한 치약'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잇몸 관리가 필요한 임신부와 중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제품으로 미세 거품이 연속 오염물질을 자극 없이 제거해 주며 치은염과 치주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 함께 선보인 '약한 잇몸을 생각한 덴탈워시'는 로즈 민트 향이 상쾌함을 더해줄 뿐 아니라 양치를 한 뒤에도 은은한 로즈 향이 남아 입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입안 가득 상큼한 봄을 맛보다

스타벅스는 벚꽃을 모티브로 한 '체리블라썸 라떼'와 '체리블라썸 화이트 초콜릿'을 선보였다. 화이트 초콜릿에 벚꽃 풍미가 어우러져 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 음료들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됐으며 식용 벚꽃을 그대로 갈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스타벅스는 이외에도 벚꽃 모티브의 텀블러와 머그, 머들러, 카드도 내놨다.

아모레퍼시픽의 차 브랜드 오설록은 제주도 꽃의 향을 그대로 담은 '메모리 인 제주'를 출시했다. '메모리 인 제주'는 일반 과자와는 다르게 꽃에서 직접 추출한 향기를 차에 담아 과일 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벚꽃향 가득한 올레', '귤꽃향을 품은 우잣담', '동백이 피는 곶자왈', '달꽃이 바라보는 바당' 등 총 4종으로 구성됐다.

CJ LION 시스테마 관계자는 "제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컬러와 향기 등 감성적인 부분을 강화해 여심을 자극하는 제품들의 출시가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yein0404@metroseoul.co.kr

스무디킹 'OK캐쉬백 고객 20% 할인'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이 최근 고객들이 스무디를 더욱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OK캐쉬백과 신규 제휴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국 스무디킹 매장에서 제품 주문 시 OK캐쉬백 카드를 제시하면 스무디를 포함한 전 제품에 대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K캐쉬백 포인트는 10% 적립되고 일부 매장에서는 서비스가 제외된다. /스무디킹 제공

'별에서 온' 별 주얼리 인기 반짝반짝

도민준의 '별 고백링' 등 별 모티브 제품들 눈길

지난주 종영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후폭풍이 거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드라마 '별그대' 열풍으로 별을 모티브로 한 주얼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무엇보다 19회 방영분에서 남자 주인공 김수현(도민준)이 전지현(천송이)을 위해 준비한 프러포즈 링이 화제다. '별고백링'으로 불리는 이 반지는 디니에 두보의 몽 파리 컬렉션으로 도민준의 별과 천송이의 별이 만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이 제품은 파리 에트왈 광장에서 만나는 연인의 모습을 디자인에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별을 콘셉트로 한 다양한 주얼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에이씨엠모나코가 선보인 '몽스텔라시옹' 라인은 '별자리'라는 뜻을 가진 컬렉션으로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조합이 시크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 중 여러 개의 별을 하나의 주얼리에 담은 제품은 꼬리가 길게 늘어진 별똥별을 연상케 한다.

스와로브스키에서도 별 모양의 귀고리와 반지, 펜던트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인기몰이 중이다. /박지원기자

봄바람보다 먼저 온 '에어컨 열풍'

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름 더위를 대비해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 가전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은 지난달 19~25일 '창문형 에어컨'과 '스탠드형 에어컨'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0%, 58%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실외기가 별도로 필요 없어 설치가 쉬운 창문형 에어컨의 경우 숙박업체 등의 수요가 매출 증가의 요인이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선풍기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여 '스탠드형 선풍기'와 '벽걸이 선풍기'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126%, 78% 각각 늘었다. '인테리어 선풍기'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25% 증가했다.

G마켓 관계자는 "이번 여름에도 무더위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수요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원기자

강남 언니의 비밀 잇백…제인꾸뛰르 몰라?

봄·여름 신상 뮤즈백 출시 홈페이지 특가 판매 진행

제인꾸뛰르가 2014년 봄·여름 컬렉션 신제품 '뮤즈백'을 출시했다.

일상에서 언제나 빛나는 존재로 남고 싶은 바람을 모던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가방으로 풀어냈다.

제인꾸뛰르는 강남 쪽에서 입소문을 타며 성장한 브랜드로 세계적인 명품 업체들이 사용하는 최고가의 가죽을 사용한 특별한 디자인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제인꾸뛰르의 가방은 일대일 주문을 받은 뒤 하나하나 보석을 꿰어서 만드는 방법으로 제작해 '꿈은 백'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인꾸뛰르(www.janecouture.co.kr)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 특가로 판매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조사 결과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로 손꼽히기도 했다"면서 "온라인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번 시즌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인기자

"'왕수박'과 성격 딴판… 실제론 답답이"

'왕가네 식구들' 끝낸 오현경

시청률 50%에 육박했던 KBS2 "왕가네 식구들" 종영 후 만난 오현경(44)은 포상휴가로 배우들과 함께 홍콩에 다녀온 이야기부터 신나게 털어놨다. "계속 먹고만 왔다. 다녀왔더니 살이 쪽 쪘다"는 말을 시작으로 지난 6개월간의 촬영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 "수박이에게 빙의됐어요"

왕가네 식구들' 흥행의 일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현경이 연기한 왕가네 첫째 딸인 허영심 많고 이기적인 왕수박이 시청자들로부터 욕을 먹을수록 시청률은 무섭게 치솟았다.

"처음엔 수박이 성격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표현할 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고, 스스로 내 연기력만 탓했죠. 실제로는 수박이와 달리 답답한 성격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수박이가 못된 게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감정이입이 됐죠. 나중엔 사람들이 빙의됐다고 하던데요. 하하하."

허영심 많은 왕수박이 매회 반복했던 "나 미스코리아 나갔던 여자야"라는 대사에 대해 묻자 "처음에 농담으로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다고 했다. 난 미스코리아 진이지 않나. 요즘에도 어디만 가면 자주 이 대사를 시켜서 창피하다"고 너스레를 떤 뒤 "그래도 이슈가 돼서 애들도 따라 한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철없던 수박이가 드라마가 종영할 즈음 철이 든 결말에 대해 "자식 때문에 변하고 성장한다는 결말이 마음에 든다.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변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수박이의 성장 과정을 짧지만 제대로 보여줬다. 드라마는 끝났어도 수박이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만족해했다.

◆ "문영남 작가는 멘토 같은 분"

드라마를 집필한 문영남 작가와는 인연이 상당히 깊다. 1992년 방송된 문 작가의 첫 작품인 MBC '분노의 왕국'을 시작으로 '폴리스', '소문난 칠공주'까지 '콩깍지'에 이어 이번 작품까지 20년 넘게 호흡을 맞춰 왔다.

자극적이고 과장된 설정이나 전개 탓에 대중의 호불호가 뚜렷이 갈리는 문 작가지만 오현경은 "극중 엄마로 나온 김해숙 선배가 연기자로서의 롤모델이라면 문 선생님은 멘토 같은 분"이라며 존경심을 드러냈다.

"문 선생님은 극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세요. 문 선생님 작품을 할 때마다 마음이 치유돼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주조연 상관없이 캐스팅한 배우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극에서도 현실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점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 **'나 미스코리아 나갔던 여자야'**
> **아이도 따라한다니 기분좋아**
> **김해숙 선배님은 롤모델이죠**
> **난 지금 연기 배워가는 과정**

다만 문 작가의 캐릭터를 연기할 때 두려운 점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못된 짓을 하면 나중에 다 돌려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빠에게도 따귀를 많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했다"면서 "머리채 잡히는 신을 찍다가 목을 다쳐서 울었다. 목이 지금도 잘 돌아가지 않아 병원에 다닌다"고 이야기했다.

◆ "이젠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부침 많은 연예계라지만 오현경처럼 굴곡 많은 인생을 산 여배우도 참 드물다. 1989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후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이후 여러 큰 악재들을 겪으며 긴 슬럼프를 보냈다. 그러다 2007년 문 작가가 집필한 '조강지처 클럽' 출연을 계기로 배우로 재기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달 초 방영될 SBS '힐링캠프'에서 털어놓을 예정인 그는 "예전에는 지난 이야기들을 하면 울컥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젠 많이 성숙해져서 더 이상 울지 않는다"면서 밝은 미소를 지었다.

현재는 싱글맘으로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딸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편이에요. 사람은 첫인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죠. 그 외에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지금처럼 일할 수 있고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행복하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책임감 때문이라도 연기가 더 깊어진다는 그는 "어떤 배역을 맡고 싶다는 욕심은 없다. 배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을 맡든 잘 표현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 난 지금 연기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며 데뷔 26년차에도 여전히 겸손한 배우의 모습을 보였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 커뮤드(디자인) 디자인/박은지

강호동·유재석 내달 새 프로그램 출격 — '강라인' '유라인' 대이동 전망

예능계 지각변동 오나

연예계 MC 양대 산맥인 강호동(사진 왼쪽)과 유재석(오른쪽)이 올봄 나란히 새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가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유·강 체제가 약해지고 비예능인들의 무대로 변한 예능 판도가 다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재석은 다음달 초중순 첫 방영 예정인 KBS2 파일럿 프로그램 '나는 남자다'를 준비 중이다. 그가 신설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이후 약 4년 만이라 기대가 높다. 이 프로그램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토크쇼 형식으로 MBC '무한도전'과 KBS2 '해피투게더' 등 유재석과 인연을 맺은 주기쁨 작가가 참여한다.

강호동 역시 다음달 MBC 파일럿 프로그램 '팬클럽 대결'을 선보인다. 스타가 자신의 팬클럽과 함께 출연해 또 다른 스타의 팬클럽과 라이벌전을 펼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봄 개편을 맞아 다양한 신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각 방송사들은 치열한 편성 눈치 작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나는 남자다'와 '팬클럽 대결'은 비록 정규 편성을 확정짓지 않은 파일럿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이지만 거물 MC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중 KBS의 경우 '맘마미아'와 '바라던 바다'의 폐지를 논의하는 한편 박명수 출연의 '밀리언셀러', 신동엽 출연의 '미스터 피터팬', 이휘재 출연의 '두근두근 로맨스 30일'을 이달 혹은 다음달 파일럿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MBC와 SBS도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개편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강호동의 움직임에는 '유라인' '강라인'으로 불리는 예능 스타들의 이동도 필연적으로 따를 전망이라 올봄 방송가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서진환기자 jink@metroseoul.co.kr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을 소개하는 중국 CCTV의 한 시사 프로그램 방송 장면

사진=HB엔터테인먼트 제공

중국은 지금 '별그대' 열풍

현지방송 집중조명… 한국 잡지·치킨집 2시간 줄서기

최근 종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열풍이 급속도로 중국을 뒤덮고 있다.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중국 CCTV의 한 시사 프로그램은 최근 '도 교수, 별에서 왔니?'라는 제목으로 9분간 '별그대' 열풍을 다뤘다. 중국의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와 바이두의 검색어 5개 중 4개가 '별그대' 관련으로 채워졌고, 한국 잡지를 파는 곳과 한국의 치킨집에서는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2일 기준으로 웨이보 인물 검색 순위에서 전지현은 1위, 김수현은 16위를 기록했다. 김수현의 웨이보 팔로워 수는 460만 명을 넘어섰다.

베이징 제2외국어대의 한 교수는 "'별그대'의 도민준(김수현)이 가져온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의 문화·습관 유행 등으로 사회적 현상을 넘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방송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하는 주요 사이트인 아이치이(iQiyi), pps, LETV, 칸칸(kankan), PPTV 등에서 '별그대' 다시 보기 조회 수는 1일 기준으로 22억 건을 넘어섰다고 제작사는 밝혔다. /유순호기자

빅뱅 승리 '엔젤 아이즈' 출연

빅뱅 승리(사진)가 SBS 새 주말극 '엔젤 아이즈'(가제)에 출연한다.

승리는 119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 한국으로 들어온 교포 출신 청년 테디 서 역을 맡았다. 인명 구조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진 테디 서는 꽃집을 운영하는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운명적인 사랑을 느낀다. 또 직설적인 성격에 쾌활하고 순수한 인물이다.

'엔젤 아이즈'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이 12년 만에 다시 만나 펼치는 아프지만 밝고 깨끗한 러브 스토리이자 천사의 눈으로 보는 힐링 멜로드라마다. 드라마 '마왕'과 '유령'을 공동 연출한 박신우 PD와 '꽃보다 남자' 의 윤지련 작가가 의기투합해 기대감을 높인다.

'엔젤 아이즈'는 '세 번 결혼하는 여자' 후속으로 다음달 방송될 예정이다. /김봉오기자 yuar@

권진아 조 1위… "가창력 성장 놀랍다"

'K팝스타3' 톱8 결정전

권진아(사진)가 SBS '일요일이 좋다-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3' 톱 8 결정전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A조 1위를 차지했다.

10팀의 참가자들이 A조와 B조로 나뉘어 열린 경연에서 A조에는 권진아·짜리몽땅·알맹·샘 김·버나드 박 등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한데 모여 시작 전부터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권진아는 프라이머리의 '씨스루'를 기타 연주와 함께 특유의 리드미컬한 발라드로 소화해 심사위원 전원의 극찬을 끌어냈다. 박진영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가창력이 많이 성장한 참가자"라고 했고, 유희열은 "완전히 다크호스로 떠올랐다"고 감탄했다.

샘 김은 지드래곤의 '그XX', 짜리몽땅은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브라운 시티', 버나드 박은 김태우의 '하고 싶은 말', 알맹은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로 자신의 개성을 살려 불렀다.

이들은 톱 10 경연부터 새롭게 추가된 라이브 반주 등 웅장한 무대 속에서 제 실력을 발휘했지만, 엄격한 심사에서 단점을 지적받았다.

짜리몽땅과 알맹이 2위와 3위로 톱 8에 진출했고 샘 김과 버나드 박은 B조 경연에서 탈락한 2명과 패자부활전을 벌인다. 패자부활전에서는 100명의 시청자 심사위원단의 비밀투표를 거쳐 2명의 합격자를 선출한다.

B조에는 한희준·장한나·썸띵·남영주·배민아가 배치됐다. 이들의 경연은 9일 방송된다.

/유순호기자 suno@

"동방신기 음악적 성숙" "소녀시대 세련미 돋보여"

美 유력 매체 새 음반 호평

'SM 남매' 동방신기(사진 왼쪽)와 소녀시대(오른쪽)가 동시에 발표한 신곡으로 미국 유력 음악 매체들의 호평을 끌어내고 있다.

빌보드는 '동방신기가 신곡 '수리수리'로 마법을 부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음악적 성숙은 물론 노래 실력도 성장하고 있는 동방신기를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곡"이라며 신곡을 소개했다.

이어 "6명의 여성 댄서와 카드 같은 소품들을 활용해 마술사의 동작을 곁들인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집중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또 소녀시대의 새 음반 '미스터미스터'에 대해 "지금까지 선보인 음반 중 가장 세련되고 성숙한 음반이다. 뮤직비디오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음악 전문 사이트 팝더스트는 "소녀시대가 이전보다 더 멋져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들 멤버의 슈퍼모델의 미모는 뮤직비디오에서 이전보다도 더 빛난다"고 호평했다.

미국 음악 전문 케이블 퓨즈TV는 "소녀시대의 새 앨범 발매는 세계적으로 축하를 받을 일이다"고 언급하며 "영화 같은 영상의 '미스터미스터' 뮤직비디오에서 그들의 귀여운 모습이 아닌 세련된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 음악 매거진인 하이프트랙, 미국 MTV의 음악 및 문화 전문 사이트인 MTV 버즈워시 등도 새 앨범과 뮤직비디오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유순호기자

내한 폴포츠 '수수한 입국'

남다른 한국 사랑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폴 포츠(사진)가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았다.

폴 포츠는 2일 오전 자전적 영화 '원챈스' 홍보를 위해 내한했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팬들의 열렬한 환호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폴 포츠는 한국땅을 빠져나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한국 팬들에게 미리 인사했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원챈스'는 영국의 평범한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오페라 가수가 되기까지의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폴 포츠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다.

연출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데이빗 프랭클 감독이 맡았으며 폴 포츠 역할은 제임스 코든이 소화했다. 폴 포츠는 오는 4일 CGV영등포에서 열리는 언론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여진구 '권법' 주연 확정

배우 여진구(사진)가 영화 '권법'의 주인공으로 확정됐다.

20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될 '권법'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한·중 합작 프로젝트로 CJ E&M과 중국 국영 배급사인 차이나필름그룹, 중국 메이저 제작투자사인 페가수스&타이허엔터테인먼트가 공동 투자 및 제작·배급을 맡는다.

'권법'은 에너지가 고갈돼가는 미래,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별리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된 고교생 권법(여진구)이 그곳에 감춰진 무한 에너지의 비밀을 거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SF 판타지 액션 영화다.

제작진은 대형 프로젝트에 여진구를 캐스팅한 것과 관련해 "여러 작품에서 선보인 감정 연기와 액션 연기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봤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소화할 가장 적절한 캐스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웰컴 투 동막골'의 박광현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캐스팅을 마치고 하반기 촬영에 들어간다. 2016년 개봉 예정이다. /유순호 기자 suno@

'겨울왕국' 애니 첫 1000만 신화

외화로는 '아바타'이어 두번째… 주제곡 '렛 잇 고' 열풍에 영화 장기흥행

디즈니가 제작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사진)이 개봉 46일 만인 2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며 외화로는 '아바타' 이후 두 번째, 한국 영화를 포함하면 11번째 1000만 관객 돌파다. 또 뮤지컬 영화, 전체관람가 영화 중에서도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넘는 등 숱한 기록을 쏟아냈다.

국내 흥행 수익은 7200만 달러(약 763억6000만원)다. 전 세계에서 9억9000만 달러(약 1조565억2500만원)의 흥행 수익을 올렸는데,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주제곡 '렛 잇 고'는 역시 영화 OST 및 만송으로는 처음으로 각종 음원 사이트 1위를 석권하며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효린, 에일리 등 연예인들이 부른 '렛 잇 고' 커버 버전, 김연아 선수의 경기 영상에 노래를 입힌 '김연아 렛 잇 고' 등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지면서 '렛 잇 고'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렛 잇 고' 열풍은 다시 관람으로 이어져 영화의 장기 흥행에 큰 힘을 실었다.

'겨울왕국'의 돌풍은 이후 서적과 문구, 여행 등 산업 전반으로도 번졌다. 색칠 스티커북, 영어책 등 관련 책 상품이 출간된 후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진입했고, 주인공 엘사 인형 등 각종 캐릭터 상품이 불티나게 팔렸다. 국내 여행사들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여행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의 흥행에 힘입어 배급사인 소니 픽처스 릴리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코리아는 싱어롱(Sing-Along) 자막 버전을 6일 개봉하기로 했다. 싱어롱은 관객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가사 자막과 번주기 더해진 상영 방식으로 이 버전은 비 영어권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개봉된다. /박지원 기자 pjw0427@metroseoul.co.kr

'폼페이' 10일만에 100만

2월 개봉작 중 최고 기록

재난 블록버스터 '폼페이: 최후의 날'(사진)이 지난 1일 누적 관객 102만9458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개봉한 '폼페이: 최후의 날'은 개봉 첫 주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고 여세를 몰아 가뿐히 100만 관객을 달성했다. 2월 개봉한 영화 중 최고 기록이다.

'폼페이: 최후의 날'은 제목 그대로 기원전 79년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18시간 만에 사라져버린 도시 폼페이의 이야기를 그렸다. 폼페이에서 실제 발굴된 인간 화석을 토대로 두 남녀의 애절한 러브 스토리부터 우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검투사의 이야기,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생을 마감하는 아버지까지 화려한 유흥 도시에서 살다 최후의 날을 맞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또 영화 '타이타닉'에 참여했던 특수효과팀이 철저한 고증과 역사적 자문을 거쳐 의상, 소품, 거리 건축물 등 당시 모든 상황을 실제처럼 재현해 스토리는 물론 볼거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김세형 기자 fanskim@

리암 니슨 '논스톱' 흥행 톱

3·1절 31만 관객 동원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논스톱'(사진)이 3·1절 하루 동안 31만 명을 동원하며 신기록을 달성했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논스톱'은 2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누적 관객 수 58만2344명을 기록했다. 3·1절 하루 관객 동원 수는 31만4911명으로, 지난해 '신세계'가 기록했던 30만7805명, 2012년 '러브픽션'의 27만1196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논스톱'의 현재 성적은 리암 니슨의 대표작 '테이큰'이 9일간 기록한 관객 수 58만 명을 개봉 3일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앞서 '테이큰' 시리즈로 각종 명대사를 남기며 정통 액션을 선보였던 리암 니슨의 신작 '논스톱'이 '테이큰'을 제치고 리암 니슨의 새로운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논스톱'은 4만 피트 상공 위 비행기에서 사상 최악의 테러 위기가 찾아 오자 미 항공수사관 리암 니슨이 모든 탑승객을 음의 선상에 올려두고 테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김하연 기자

'신이 보낸 사람'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서 상영

북한의 인권 실태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상영된다.

제작사 대풍코리아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상영을 계기로 '신이 보낸 사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상영은 유엔에 등록된 최초의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사됐다.

제작사에 따르면 상영회에는 유엔의 각국 대표 관계자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협의기구 지위를 받은 한국의 유일한 북한 인권 비정부기구(NGO)의 각국 담당자, 유엔 상주 각국 대표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이 보낸 사람'은 열악한 상영 환경에도 누적 관객 수 30만 명을 넘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병호 기자 yjan@

강렬하고 섹시한 2NE1

두번째 월드투어 서울공연 이틀간 1만2000여 팬 열광

걸그룹 2NE1이 두 번째 월드투어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2NE1은 2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올 오어 나싱(AON)' 서울 공연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여자도 남자만큼 강할 수 있다'는 콘셉트의 이번 공연에서 2NE1은 강인한 매력에 섹시함까지 선보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공연의 포문을 연 신곡 '크러시'는 싱어송라이터로 발돋움한 멤버 CL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한 노래다. 2NE1은 데뷔곡 '파이어'와 '아이 돈 케어' '아글리' '내가 제일 잘 나가' 등 히트곡을 연이어 부르며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크러시'에 이어 공개한 2NE1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신곡 '살아봤으면 해'는 역시 CL이 작곡에 참여한 곡이다.

멤버들은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이 무척 마음에 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신곡 릴레이가 이어지며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 '컴백홈' 무대도 공개됐다. '컴백홈' 무대는 어쿠스틱 버전과 원곡 버전으로 각각 선보이는 등 다양한 매력을 뽐어냈다.

어쿠스틱 버전에서 기타 연주를 보여주려했던 산다라 박은 "F코드를 못 쳐서 그 코드가 들어간 노래는 안 치는데 '컴백홈'은 F코드로 시작해 F코드로 끝난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1~2일 서울 공연으로 월드투어의 닻을 올린 2NE1이 관객의 환호를 받고 인사를 전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날 공연에는 데뷔를 앞둔 신인 그룹 위너도 등장해 무대를 풍성하게 꾸몄다. 또 CL의 솔로곡 '멘붕'과 '스크림' 등 CL의 매력이 돋보이는 무대도 이어졌다.

4년 만의 정규앨범 '크러시'의 발매에 맞춰 열린 이번 월드투어는 지난 1일에 이어 이틀간 1만2000명을 동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중국·일본 등 9개국 12개 도시에서 총 15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illegible] metroseoul.co.kr

2만여 대륙팬 홀린 비스트

아이 원트 뮤직 파워 콘서트

그룹 비스트(사진)가 한국을 대표하는 K-팝 가수로 2만여 명의 중국 팬을 사로잡았다.

비스트는 1일 선전의 선전완체육센터에서 열린 '아이 원트 뮤직 파워 콘서트 인 심천(선전)'에 출연해 '픽션'을 시작으로 '쇼크' '섀도우' '아름다운 밤이야' 등 히트곡을 연이어 부르며 힘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비스트는 '픽션'의 후렴구를 따라 하며 환호하는 팬들에게 중국어로 화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공연에는 활동 공연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리쥐준·임요가·아이이·에바·한경·클리프에프·빠둘레이디·레베 등 중화권 톱 가수들이 총출동했다. /홍순호기자

베일 벗은 인피니트 유닛 '가슴이 뛴다' 첫 공개

그룹 인피니트가 새 유닛의 존재도 예고했다.

인피니트는 지난달 28일 월드투어 서울 앙코르 공연 '원 그레이트 스텝 리턴즈'에서 새 유닛인 인피니트F를 최초로 공개했다. 엘·성열·성종으로 구성된 유닛으로 '가슴이 뛴다'라는 신곡을 선보였다. 이 곡은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멤버들의 귀여운 안무가 인상적이다.

사진 왼쪽부터 엘, 성종, 성열. /뉴시스

인피니트는 이날 공연에서 '가슴이 뛴다'를 비롯해 3곡의 신곡을 공개했다. 지난해 스페셜 걸 로 성공적인 활동을 한 호야·동우의 유닛 인피니트H는 '얼른 이리와'는 강렬한 힙합곡으로 관객의 귀를 사로잡았다. 우현은 직접 작사한 솔로곡 '눈을 감으면'으로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인피니트는 다음달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며, 인피니트F를 비롯한 다양한 유닛과 솔로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효진기자

비, 中 인기 예능 '원맨쇼'

'쾌락대본영' 90분 단독 게스트 출연

가수 비(사진)가 중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쾌락대본영'에 단독 게스트로 출연한다.

비는 3일 이 프로그램에 단독 게스트로 90분 편성을 받아 녹화에 들어간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비가 출연했던 후난TV의 오디션 프로그램 '쾌남 결승전' 생중계 반응이 좋았다"며 "현지에선 이미 '쾌락대본영'의 방청권이 매진됐다"고 전했다.

이번 녹화에서 비는 6집 '레인 이펙트'의 수록곡 '30 섹시' '라 송' 등을 중국 무대에서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쾌락대본영' 측은 "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비에게 숨겨진 많은 재미와 다채로운 매력을 찾아내 중국 팬들에게 색다른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비의 녹화분은 오는 8일에 방송될 예정이며 비는 중국 활동에 박차를 가해 오는 28일 베이징 국가체육관에서 열리는 '2014 레인 이펙트 쇼 인 베이징'에서 중국 팬들과 공식적으로 만난다.

/김지민기자

날씨

3/3 月 일출 07:01 일몰 18: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96.co.kr

흡연은 기관지 섬모운동을 저하시켜 호흡기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금연만이 폐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우리 모두는 한때 유치원생이었다

임경선의 모놀로그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다. 나의 딸도 신입생 중 한 명이다. 지난주 많은 축하와 더불어 마침내 학부형이 되는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다.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 주의인 나는 비장함 하나 없이 그저 유치원 졸업이라는 감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다.

당사자인 딸아이가 더 심경이 복잡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심란해하던 딸아이가 며칠 전엔 이부자리 속에서 이렇게 외치더라. "금요일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초등학생이 되는 게 말이 돼?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 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유치원에서 배운 것밖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엄마인 나는 빵 터졌다. 아무렴 누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다음 단계를 거치며 살아가야 하는 법. 게다가 유치원에서 배운 걸로 이미 충분하단다 이것아.

한때 세상을 휩쓸었던 로버트 풀검의 베스트셀러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가 생각났다.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났지만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어른이 되니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단 게 진실임이 판명됐다.

친구를 괴롭히지 않을 것, 물건을 소중히 함께 나누어 쓸 것, 가급적이면 양보할 것, 실수를 했다면 먼저 용기내서 말할 것,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줄 것, 내가 잘못하면 사과할 것, 자신이 어지럽힌 건 스스로가 치울 것, 오후에는 낮잠을 잘 것, 독서 시간을 가질 것, 그림 그리기나 공작을 통해 마음껏 자기 표현을 할 것.

어른들의 인생에도 얼마나 고스란히 적용되는 배움들인가. 사회생활에선 타인에게 피해 안 주도록 노력하기, 내가 친 사고는 스스로 수습하기, 인간관계에선 공정할 것, 주변의 약자를 도울 것, 개인 생활에선 충분한 휴식과 독서와 창의적 활동을 할 것.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은 이렇게 진즉에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었다. 그주에 한 번 유치원 선생님들이 부모들에게 보내는 소식지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들어 쓰여져 있었건만 나는 소풍 날짜나 준비물만 체크하고 읽지도 않고 버렸었다. 깨달음은 매번 이렇게 뒤늦게 찾아온다. /칼럼니스트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9			5
					3	2		
		8	6			9	4	
1	9					4	5	
			3		1			
	2	7					9	1
	1	4			7	5		
		3	5					
6			1			7	3	

			7		1			
					6	4	1	7
				2		8		
3			8	1	5	6	9	
9								1
	2	6	3	4	9			5
		2		5				
7	3	8	1					
			6		8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첫뉴스
영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본의 아니게 하우스푸어인데 뾰족 대안 없어 손해 감수를

보그미 여자 70년 1월 17일 음력 오전 8시

Q 10년 전에 절친의 소개로 기획부동산의 지방 토지와 서울의 집을 올겨디니다. 할리지 않게 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우스푸어가 된 거죠. 월년쩍 딜리지 방이 대출이자에 집수리 비용이며 금전에 실직으로 힘듭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 정리하고 싶은데 언제쯤 괜찮을까요?

A 사주에 재다신약(財多身弱)이 있습니다. 특성은 자신이 신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톡제하고 제어하지 못하여 남의 말에 따라가다가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부자로 잘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재산(財産)이 많으면 기운이 강한 신강(身强)한 사주가 되어야 좋으나 신약한 사주는 재(財)가 많아도 그것을 보기만 할 뿐 자신의 것으로 거머쥘 수 없게 되니 의식주를 위해 항상 바쁘고 분주하지만 실속이 없어 궁핍함을 면치 못합니다. 질문의 요지인 당면해 있음 현재의 운세에서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관재를 당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과감한 손해를 본다 해도 손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학사 편입-전문학원 갈까 고민 느긋하게 내년 대학 도전하길

blue00st 여자 88년 1월 23일 오후 10시30분

Q 뮤덤하고 답이 안 나와서 글을 올립니다. 2010년에 방통대에 들어가서 임문대 편입을 위해서 정할 할만 보고 2학년을 다녔다 휴학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학사 편입으로 한 번 더 지원을 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푸드스타일리스트 학원을 다녀서 그쪽으로 가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A 생일지(生日支 태어난 날)가 녹아동향(祿馬同鄕)으로 정관(正官) 작업과 재성(財星, 재물)이 숨어 있어 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문의 기운에 역마가 귀격이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외화를 획득하지만 귀하의 현재 운세는 발이 아프게 돌아다녀도 실속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과를 얻기 전에 싫증을 내기도 하고 지속성이 없어 일이 매듭 짓지 못하는군요. 학사 편입 관철을 2015년에 생각하십시오. 100세 인생에서 1~2년 늦고 빠름은 전체 인생의 삶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성도 부족하지만 구주병적(九醜病的) 한이 이성 간의 분탁상이 예견되어 연애사가 가정과 학업에 문제를 불고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읽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1일 음 1월 29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중요한 정보는 보안에 신경 써라. 60년생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 얻는다. 72년생 복수는 복수를 부르니 삼가라. 84년생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

소 49년생 참고 기다리면 기쁨은 커진다. 61년생 쥐의 말 쓴 늑대 경계하라. 73년생 사람은 많이 만나니 소득은 별로다. 85년생 짝이 꿈꾸는 이성과 마주하니 가슴이 쿵쾅~

호랑이 50년생 돈 앞에 흔들리지 마라. 62년생 세상은 살지빈은 약자가 발전시킨다. 74년생 구설수 있으니 입 다물어라. 86년생 큰 못의 진쟁이보단 연못의 대어가 좋다.

토끼 51년생 인사 문제 방심하면 허 찔린다. 63년생 문서 일은 당분간 보류할 것. 75년생 문을 열면 복이 굴러들어온다. 87년생 연인과 돈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신경 써라.

용 52년생 벽한 일은 아랫사람과 공조할 것. 64년생 뒤집어보면 새 모습이 보인다. 76년생 염소가 다가고 소가 들어오는 형국~ 88년생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진다.

뱀 53년생 생각도 못 한 선물 받는다. 65년생 기회는 예고 없이 오니 준비할 것. 77년생 서두르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 89년생 일이 잘 풀리더라도 자만하지 마라.

말 42년생 배우자와 발걸음 엇갈려 애~ 54년생 거래처의 적당한 밀당은 이롭다. 66년생 떠난 버스는 빨리 잊어라. 78년생 심사가 약속을 이겨서 속이 상한다.

양 43년생 소유권 문제로 얼굴 붉힌다. 55년생 오늘의 행운은 하늘이 준 것이니 받아라. 67년생 불리한 조건이 약이 된다. 79년생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것 얻으리라.

원숭이 44년생 배우자 넉넉한 아량에 감동~ 56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손해만 본다. 68년생 남의 눈치 때문에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라. 80년생 가문에 단비가 내린다.

닭 45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다. 57년생 의심 가는 일엔 발을 빼라. 69년생 작은 것에 연연하면 큰 것을 잃는다. 81년생 남쪽으로 가는 계획은 가능한 한 피하라.

개 46년생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멀리하라. 58년생 문서 일은 지갑이 생긴다. 70년생 쇠뿔을 흔들려다 소를 잡는 형국이다. 82년생 운감이 밀려나 자중하는 게 좋다.

돼지 47년생 집안에 웃음소리가 넘친다. 59년생 거짓말 한 하게 생긴 사람 경계하라. 71년생 배운 것은 거뒤들일 때다. 83년생 첫술에 배부르랴. 작은 것에 만족할 것.

"태극전사 기량점검 무게"

홍명보호 6일 그리스전 앞두고 출국… "가상의 러시아 상대 기회"

브라질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한 마지막 생존 경쟁이 시작된다.

홍명보(45)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위해 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6일오전 2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릴 평가전은 브라질행 티켓을 손에 넣을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는 무대라 할 수 있다.

홍 감독은 이날 6명의 K리그 소속 선수와 2명의 중국리그 소속 선수 등 8명과 함께 출국했고, 나머지 유럽·중동·일본에서 활약하는 15명의 선수는 현지로 직접 불러모으는 등 실질적인 주전 자원들을 전원 소집한다.

국내파는 주전 골키퍼 자리를 놓고 2파전을 벌이는 정성룡(수원 삼성 블루윙즈)과 김승규(울산 현대), 원톱 한 자리를 놓고 박주영(왓퍼드 FC)과 경쟁할 김신욱(울산)과 이근호(상주 상무), 중앙수비수 김주영(FC 서울), 포백 수비수 이용(울산) 등 6명이다.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FC)과 하대성(베이징 궈안)은 중국에서 먼저 귀국해 국내파와 함께 출국했다.

오는 6일(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앞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김신욱과 김선봉 등이 2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벤치 워머 논란에도 홍 감독의 변함없는 애정을 받아온 박주영이 먼저 아테네에 도착하며 홍정호·지동원(이상 FC 아우크스부르크), 박주호·구자철(이상 FSV 마인츠), 손흥민(바이엘 레버쿠젠), 이청용(볼턴 원더러스 FC), 남태희(레퀴야 SC) 등이 속속 훈련지로 집결한다. 기성용(선덜랜드 AFC)과 김보경(카디프시티 FC)은 3일 오전 경기를 치른 후 합류한다.

대표팀은 3일부터 이틀간 현지 적응과 전술 훈련을 치른 뒤 아테네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그리스 대표팀과 경기를 치른다.

홍 감독은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그리스 평가전은 브라질 월드컵에 나설 최종 엔트리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경기"라며 "월드컵 본선에 대비해 준비해온 것을 펼쳐 보이는 자리인 만큼 평가전 결과보다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스는 월드컵 본선 1차전에서 상대할 러시아와 경기 스타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체격 조건이 뛰어난 만큼 유럽 선수들을 미리 상대해보는 좋은 기회"라며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해온 것을 제대로 보여줘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문태종의 오버헤드킥? 2일 오후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창원 LG-서울 SK전에서 LG 문태종이 SK 수비들의 강한 저지를 받자 공을 향해 마치 축구에서 오버 헤드킥 하듯 발을 뻗고 있다. /연합뉴스

리그 1위, 모비스냐 LG냐

<11연승> <10연승>

7일 맞대결이 우승 분수령

프로농구 1·2위 팀인 울산 모비스와 창원 LG가 거침 없는 연승행진을 벌이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이어갔다.

LG는 2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SK와의 홈 경기에서 87-80으로 이겼다. 11연승을 기록한 LG는 38승14패가 되면서 1위 모비스(39승13패)와의 승차를 1경기로 유지했다.

LG는 문태종이 20점, 발목 부상 투혼을 보인 데이본 제퍼슨이 17점 12리바운드, 김종규도 16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모비스는 이날 원주 동부와의 홈경기에서 79-63으로 완승을 거두며 10연승을 달렸다. 모비스는 문태영이 28점, 로드 벤슨이 16점-13리바운드로 활약하며 단독 1위를 지켰다.

LG와 모비스는 7일 울산에서 맞대결을 남기고 있어 어느 팀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할지 점치기 어렵다.

부산 KT는 서울 삼성을 61-52로 물리쳤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일

삼성	12	16	13	11	52
KT	10	16	16	17	61
LG	20	27	18	22	87
SK	13	23	18	26	80
모비스	23	16	24	16	79
동부	16	23	17	13	63
우리은행	23	11	26	21	84
신한은행	25	14	[illegible]	16	66

역시 박지성…동점골 어시스트

에인트호번 5연승… '풀타임' 손흥민 수차례 날카로운 슛

박지성(33·PSV 에인트호번)이 5개월 만에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박지성은 2일 네덜란드 데벤테르에서 열린 2013~2014시즌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 26라운드 고 어헤드 이글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1-2로 뒤진 후반 22분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다.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쥐르겐 로카디아에게 패스를 이어줘 로카디아가 골을 성공시켰다.

지난해 9월 AFC 아약스 암스테르담과의 경기 이후 귀중한 공격포인트를 추가하며 시즌 2골 3도움을 기록했다. 에인트호번은 박지성의 동점 어시스트에 힘입어 3-2로 역전승을 거뒀다. 박지성은 후반 31분 교체됐다.

바이엘 레버쿠젠의 손흥민(오른쪽)이 2일 FSV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인트호번은 5연승을 기록하며 13승5무8패 승점 44로 리그 5위를 유지했다.

독일 프로축구에서는 코리안 더비가 펼쳐졌다. 손흥민의 레버쿠젠과 박주호·구자철이 소속된 FSV 마인츠가 붙은 분데스리가 23라운드 경기에서는 마인츠가 1-0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은 풀타임으로 출전하며 여러 차례 위협적인 슛을 날렸지만 골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박주호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90분을 소화했고 선발 출전한 구자철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구자철은 후반 21분 상대 선수와 충돌 후 교체됐다.

대표팀 공격수 지동원과 수비수 홍정호(이상 FC 아우크스부르크)는 하노버 96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이들도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유순호기자 suns@

여자축구 U-20 월드컵 잉글랜드·멕시코 등과 한조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1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 조추첨 결과 나쁘지 않은 편성을 따냈다.

1일 캐나다 몬트리올의 르센터 호텔에서 열린 대회 조추첨 결과 한국은 잉글랜드·멕시코·나이지리아와 C조로 편성됐다. 8월 캐나다에서 열릴 이 대회에서 8월 6일 잉글랜드와 1차전을 치르고 9일 나이지리아, 13일 멕시코와 차례로 격돌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아시아축구연맹(AFC) 15세 이하 여자챔피언십 우승팀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정성천 여자 U-20 대표팀 감독은 "각 팀이 비슷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준비를 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8월 선수들의 플레이로 모두 깜짝 놀라게 하겠다. 4강 진출 이상을 목표로 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진환기자 tuk0427@

현대캐피탈 선두 삼성화재에 승점 1점차 추격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대한항공 점보스를 꺾고 선두 삼성화재 블루팡스를 바짝 추격했다.

현대캐피탈은 2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3~2014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원정경기에서 대한항공을 세트 스코어 3-1(25-20 25-15 18-25 25-20)로 이겼다.

현대캐피탈 외국인 주포 리버르만 아가메즈(30점·콜롬비아)가 팀의 고비 때마다 역할을 톡톡히 하며 승리로 이끌었다. 문성민(12점)도 힘을 보탰다.

승점 3을 추가한 현대캐피탈(승점 58)은 선두 삼성화재(승점 59)와 격차를 승점 1로 줄였다. 이로써 2008~2009시즌 정규리그 우승 후 5년 만에 정상 탈환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3위 대한항공(승점 41)은 2연패를 당해 4위 우리카드 한새(승점 39)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게 됐다. /박진환기자 tuk0427@

프로배구 전적 2일

대한항공	1	3	현대캐피탈
흥국생명	0	3	IBK기업은행